

다산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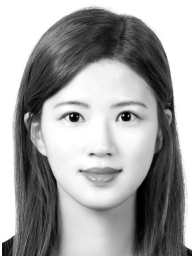


김진균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대학에서는 지금의 한두 주 사이가 성적처리 기간이다. 시험을 치르고 성적을 기다리는 학생들만큼이나 교원들 대부분도 지금이 한 학기 중 마음이 가장 무거운 시기이다. 깊은 답안과 넓은 답안과 색다른 답안 모두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불성실한 답안과 무책임한 답안과 무기력한 답안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을 터인데, 상대평가 제도 아래에서는 1등부터 꼴등 사이의 순위에 가치와 사연을 담을 공간은 없다. 그만그만한 답안지들이 평점이 갈리는 지점에 걸려 있으면 출석부 사진을 여러 번 확인하면서 누구의 답안지에 더 높은 서열을 매길지 고민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

성적 이의신청 기간에는 학교 시스템에 접속할 때마다 머뭇거리게 된다. 어떤 하소연과 항의가 들어와 있을지 두렵기 때문이다. 하소연과 항의를 납득으로 바꿔놓는 일에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과 감정이 소모되는데 이의신청을 하는 학생들은 해마다 늘고 있으니 가슴의 돌덩이가 점점 무거워지는 기분이다. 이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쪽으로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청춘 특특



김부민
동신대 한의학과 3년

짧고 강한 정보가 일상을 지배하는 시대. 하지만 그렇게 쏟아지는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 정작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과잉된 콘텐츠 소비가 낳는 ‘정보 피로’ 현상이 현대인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

유투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 짧은 영상들이 하루의 틈을 촘촘히 채우고 있다. 스마트폰의 시청 기록을 살펴보면 수십 개의 영상은 기본이고 수백 개에 이르는 날도 드물지 않다.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끊임 없이 콘텐츠를 소비하지만 정작 기억에 남는 것은 거의 없다.

가끔은 시청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며 ‘내가 이걸 봤었나?’ 하고 놀라는 순간도 있다. 짧고 강한 자극에 반

기고



이혜승
수자원공사 영·섬유역관리처장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의 실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으며 그 강도와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작년 유럽 동부의 일부 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반면 서부 지역은 폭우와 홍수로 강이 범람해 도시가 물에 잠기는 등 가뭄과 홍수가 동시에 발생하는 극단적인 기후 양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어느 해는 기록적인 폭우로 강이 넘치고, 다른 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하천이 바닥을 드러내며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은 이러한 기상이변을 크게 체감하는 지역 중 하나다. 2020년 여름, 섬진강 유역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최대 5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단 이틀 만에 쏟아졌다. 그로부터 2년 뒤에는 광주·전남지역에 281일간 최장의 가뭄이 이어져 광주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이 준공 이래 최저 수위를 기록했다. 불과 2년 만에 정반대의 재난과 사투를 벌여야

상대평가를 폐지하라

채점 기준이 명확하여 성적이 예측 가능해질수록 이의신청은 적어진다. 그래서 비판력과 창의력을 묻는 논술형 문제는 도태되고 단면적 지식의 단답형 문제가 생존의 적자가 된다. 그리하여 대학 강의실에서 정답과 오답이 칼로 벤 듯 선명하게 나뉘는 문제만 찾아 보면 최첨단의 학문적 쟁점을 논하기는 어렵다. 구굴 검색하면 나오는 수준의 사전적 지식만 주로 다룰 수밖에 없으니 교양시험 문제지와 공무원시험 문제지가 고래의 앞발과 물고기의 지느러미 같은 상사기관(相似器官)의 관계가 되어버린다. 다음 단계는 취업학원이 대학을 압도하여 우세종이 되는 일이 아닐까.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까지 망가뜨리는 이 사태의 진짜 원인은 망가진 노동환경이다. 사실 성적 이의신청에 몰리는 학생들은 졸업 이후에 만나게 될 노동환경이라는 선택압력에 의해 그렇게 적응해 온 것일 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절망적 낙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흐르는 거대한 간격을 학생들은 이미 감지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이 되어도 부모 세대만큼의 경제적 재생산이 어렵고 가정을 꾸리는 것조차 불확실한데 하물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이하의 길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이다. 빵이나 전기를 만든다며 노동자를 죽인 기업이 또 노동자를 죽이고 있는데 할 수 없이 그 회사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뉴군을 피하고 싶지 않겠는가.

성직순으로 나눠주는 대기업 입사 추천서라도 받아 보고 거기 지원해서 불을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학생은 악착같은 학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성적

이 A+이 아님을 확인하는 순간 채점 기준을 법부적 정점으로 따져보거나 갑자기 조부님이 입원하시고 부모님 사업이 망해서 성적우수장학금을 꼭 타야 하는 사연을 만들어보기도 한다. 이런 학생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교원도 있지만 대개 그들 자신도 계량화된 논문 편수라는 명확하고도 반학문적인 기준으로 평가받는 일에 적응하여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회복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진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노동환경의 개선이다. 대학 내 노동환경부터 개선하고 학문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노동의 존엄을 이해하는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 노동의 의미 자체가 변할 것이라는 예언도 있지만 노동자를 사람으로도 생명으로도 대접하지 않는 19세기적 수렁에서 여전히 질척거리고 있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21세기적 격정에 앞서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교육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그 성과가 고등교육의 영역으로 되돌아오고 다시 강의실에서 최첨단의 학문적 쟁점을 논할 수 있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 시간을 앞당길 방법이 하나 있다. 지금 당장 상대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서열 압박에서 풀려나면 교원은 마침내 비판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 단답형의 단편적 지식으로 파악하던 학문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학생들은 모든 학문이 인간다움을 위한 문명적 노력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정보 피로’에 빠진 현대인들

복적으로 노출되는 우리의 뇌는 점점 피로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피곤함을 넘어선 ‘정보 피로’라는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우리는 종종 지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 “하루에 수십개 숏폼 영상을 보는 것 같은데 봤던 내용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는 순간에는 재미있지만 이후에는 공허함과 자괴감이 밀려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스마트폰 중독이나 콘텐츠 중독이 아닌 정보 과잉에 따른 뇌의 과부하라고 진단한다. 이를 ‘정보 피로’(information fatigue)라고 정의하며 과도한 정보 노출로 인한 집중력 저하, 판단력 약화, 감정적 무기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보 피로’라는 개념은 이미 1990년대,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가 시작되며 등장한 새로운 현대병이다. 전문가들은 정보 피로가 단순회 피곤함을 넘어 인지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분석력 저하, 불안감의 증가, 자기 확신의 약화 등이 있으며 이는 종종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부로 전가하려는 심리적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결과적으로 업무 결정의 지연, 비효율적인 시간 사용, 스트레스 증가, 나아가 신체적 질환과 잘못된 판단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대일수록 정보를 ‘얼마나 많이’ 소비하느냐보다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무작정 받아들이기 보다는 정보의 맥락을 파악하고 스스로 취사선택하는 미디어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짧고 강한 콘텐츠가 주류가 된 지금, 우리는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디지털 디톡스’다. 몰입이 필요한 시간에는 푸시 알림을 끄고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하는 사소한 실천 하나 하나가 모여 과잉 정보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내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보의 미로를 걷고 있다. 무작정 나아가기 보다는 한 걸음 멈춰 방향을 살피고 세밀 정보와 놓아줄 정보를 결정하는 능력이 이 시대의 진정한 나를 위한 첫걸음이다.

극한 홍수에 대비한 과학적 댐 운영

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장흥군에는 이틀간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집중호우와 장기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물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제 자연은 평균값을 따르지 않고 과거의 경험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 불규칙한 강우는 예측하기 어렵고 현장 대응 역시 더욱 신속하고 정밀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선제적 준비’, ‘민첩한 대응’, ‘과학적 방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주암댐과 섬진강댐 등 주요 다목적댐의 수위를 홍수기 전부터 낮춰 극한 홍수에 대비한 물그릇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기상예보를 기반으로 한 계획적 방류를 통해 하류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장흥군에 폭우가 내렸을 때도 장흥댐은 사전에 확보한 물그릇을 활용해 수문 방류 없이 댐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피해를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사전 준비는 예측이 어려운 폭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댐 운영의 정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디지털트윈’ 기술도 도입했다. 디지털트윈은 실제 유역의 지형, 수문, 수위 정보를 3차원 가상공간에 구현해 실시간으로 댐 유입량을 예측하고 방류 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하류 상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미리 분석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극한 강우 발생 시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기상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강우 예보·수문 방류 계획 등을 공유함으로써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방류 시에는 재난 문자, 카카오톡 알림, 경보 방송 등 다양한 수단으로 주민들에게 신속히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댐 운영은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운영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판단, 정교한 대응 시나리오를 갖춘 과학적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예측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며 국민 모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물관리 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기후위기에 따라 댐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이고 운영 또한 점차 고도화될 것이다. 극한 홍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준비된 대응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社說

‘밀리환초’ 강제동원 비극 진상규명을

태평양전쟁 당시 남태평양 마셜제도 밀리환초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피해자 대다수가 전남 출신으로 밝혀졌다. 일본인 사학자 다케우치 야스토씨의 끈질긴 노력 끝에 잊혀진 조선인 강제노역의 비극이 실체를 드러냈다.

다케우치가 도쿄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밀리환초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640명 가운데 99%인 635명이 담양·나주·장흥·순천 등 전남 출신이었다. 밀리환초의 비극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5년 마셜제도 끝에 있는 밀리환초에 강제동원 됐던 조선인들이 일본군의 잔혹행위에 저항했다가 집단으로 학살당한 사건이다. 비행장 활주로 등 군사시설 건설에 투입된 조선인들은 극심한 기아 상태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중 일본군이 조선인 인육을 고래고기라고 속여 배급한 사실을 알고 분노해 집단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혀 218명이 총살을 당했다.

다케우치는 지난해 6월 희생자 중 214명이 전남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작성한 피정용 사망자 연명부와 해군 군속 신상조사표 등을 토대로 노역자 전체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

족회가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일명 ‘광주천인소송’ 원고 23명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 동원된 날짜, 사망일, 동원 당시 땀던 선적, 일을 하고 받지 못한 미지급금 등이 자세하게 적혀있어 향후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심있는 일본인 사학자에 의해 뒤늦게나마 밀리환초 강제동원의 비극이 밝혀지게 돼 다행이다. 안타까운 점은 희생자 대다수가 우리 고장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비극이 발생한 지 80년이 되는 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일본 정부의 진상여인 사과와 진상규명 일 것이다. 피해자 보상과 유해 반환도 이뤄져야 한다.

마침 새 정부도 들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광주천인소송을 주도했던 이금주 회장이 사망하자 평생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에 헌신한 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국가적 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자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밀리환초 비극의 해법 찾기가 새 정부의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한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

신규 보급 순찰차가 ‘깡통’ 수준이라니

경찰이 최근 보급한 신형 순찰차에 핵심 부품이 탑재되지 않아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112시스템을 컨트롤하는 태블릿이 설치되지 않은데다 경광등도 안 켜져 ‘깡통 순찰차’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남경찰청 등 지방경찰청 3곳에 그랜저와 넥소 등 2종의 신형 순찰차를 보급했다. 하지만 112 시스템과 연동해 긴급 신고 처리 및 현장 상황 파악을 돕는 핵심 장비인 태블릿이 설치되지 않아 2주일 가량 주차장에 세워둔 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고속도로순찰대에 5대, 목포경찰서에 1대를 보급했지만 장비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아 운행할 수 있

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는 125대 가운데 21대에서 표준 사양과 맞지 않는 경광등이 설치돼 작동이 되지 않는 일도 발생했다고 한다. 순찰차 납품 문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지난달에는 납기를 수개월 넘겨 지각 납품됐고 이마저도 일부 순찰차에서 부실 장비가 확인될 정도이니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경찰청은 어차구니 없는 납품으로 ‘깡통 순찰차’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불법이 확인되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순찰차 제어 시스템 납품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오늘의 화석상’(Fossil of the day prize)은 세계 150개국 2000개가 넘는 기후환경 운동단체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International)가 주관하는 상이다.

1999년부터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 중 기후 협상의 진전을 막아 기후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데 최선을 다한’ 나라 세 곳을 선정, 각 날마다 1~3위를 선정해 수여한다. 전 세계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소극적인 나라를 비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상을 받는 나라는 ‘기후악당 국가’임을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가받았다. 세계 13위권 경제 규모의 나라가 위기의 지구를 구할 영향력을 발휘하는 커녕, 전 세계에 ‘기후악당’으로 등극한 것이다.

새 정부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후에 너지정책 컨트롤타워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면서 전남 서남해를 해상풍력 메카로 조성해 전남 RE 100산단을 조기 구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하는 대전환 정책을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12월 6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기간 3위에 오르며 역사상 처음 수상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 기간에는 ‘오늘의 화석상’ 1위에도 올랐다.

속도감 있는 공약 실천이 비상계엄 여파로 주춤했던 글로벌 코리야의 위상을 찾는 길이다. ‘기후악당’ 대신, 위기의 지적 금융의 화석연료 지원을 금지하자는 협약에 반대하는데 ‘공한’한 점을 높이 평가. /김지을 사회부장 dok2000@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집 부 220-0649 치 부 220-0634 제 부 220-0648 회 부 220-0664 사 회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24 예 향 부 220-0692 여 론 매 체 부 220-0661 사 진 부 220-0693 디 지 털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